

五台山の 傳說的인

「계수나무」呼稱

〈任慶彬博士의 書信〉

編輯者註： 本誌41號(99.12.31.刊)13p「提言」에서編輯者는 國立公園內의 名所·稀貴植物에 對한 案內板의 內容은 學術的價値와 正確한 名稱을 記述할것을 主張하면서 紙面과 時間關係로 많은 林學者의 所論을 列舉하지 못했습니다. 「나무百科」의 著者이며(前本會 學術副會長) 서울大農大教授를 지난후 現在 圓光大農大林學科 教授이신 任慶彬博士께서 늦게나마 이에 對한 質疑에 알뜰한 說明을 편지로 보내주셨기에 여기에 申습니다.

〈前略〉

1. 五台山上院寺는 우리나라 이갈나무(또는 잎갈나무·뽕갈나무·朝鮮落葉松·在來種落葉松등으로 말하고있음)의 分布南限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人爲的으로 植栽되었으리라는 假說도 排除할수 없으나 大體로 自然生일것으로 보고있다. 現在 大韓民國의 版圖를 말할때 鄭台鉉博士는 쓰기를 「南方的 五台山上院寺境內海拔高900m地帶에 胸高 直徑1.2m高20m에 達하는 老木이 一株植栽되어있으며 樹下에는 稚樹數本이 發生한것을 볼수 있다」라 했고 또 「分布의 最南限인 江原道(金剛山)에서 볼수 있다」고 했으니 上院寺의 朝鮮松을 人工植栽로 본다면 自然木은 우리나라에는 없는것으로 된다.

그러나 種子가 들어와 養苗가되어 試驗栽培가 된바 있으나 歐洲落葉松과 함께 그 成長은 極히 不振했다. (任博士의 栽培경험에 依함) 그 種子의 出處는 日本서 들어온것인지 記憶이 나지않는다. 이처럼 이갈나무(또는 잎갈나무·朝鮮落葉松)는 寒地性이며 暖地性의 日本落葉松과는 對가되는 것이고 現在우리는 日本落葉松을 主로 造林하고있다.

2. 계수나무로 부르는것은 江原道의 一部地方俗名이

고 國民이 인식하고있는 계수나무와는 全然關係가 없다. 계수나무는 濶葉樹로서 日本原產의 것이다. 그리고 常綠濶葉樹인 「목서」(日本種)를 文人들이 계수나무(桂)로 말했고 또 樹皮가 辛味가 있는 桂皮나무(中國產)도 계수나무라해서 계수나무라는 樹木名을 異木同名으로 使用되고 있어서 操心해야 한다.

그러나 現在우리가 學問的으로 계수나무라하는 것은 落葉濶葉樹인 日本產의 Katsuratree를 말한다.

3. 五台山上院寺의 이갈나무(잎갈나무)는 白頭山地帶에 많다. 이갈나무란 名稱은 「益佳木」을 우리말로 表音한것으로 생각되고 나무가 오래 자랄수록 그 質이 더욱(益) 좋아진다(佳)는 뜻이다. 이 이갈나무란 樹木名은 우리先祖가 오랜歲月동안 使用해온것인데 光復後 「이갈나무」를 「잎갈나무」라 한것은 이것이 落葉松(잎을 겨울에 갈아치우는 나무란뜻)이기에 漢名을 우리말로 意譯한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잎갈나무(또는 뽕갈나무)란 말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갈나무」에 對한 향수같은것이 筆者에겐 깊게 남아있다. 日本사람들은 이나무를 「朝鮮カラマツ」라한다.

4. 이갈나무의 異名으로는 락(낙)엽송·杉木·赤木·益佳木·이가리나무·계수나무 등이 있고 中國名로는 落葉松·羅漢松·黃樺松·黃蒿松·黃花松 등이 있다. 赤木은 樹皮色이 붉은데서 온것이다. 漢字名으로 「杉」을 많이 適用한바있는데 그렇다고 現在우리가 말하는 삼(杉)나무와는 全然다른 것이다. 白頭山의 東北麓에 杉浦란 地名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地名을 益葛捕(이갈포)라 쓰기도 했다. 益葛(益葛)은 杉을 뜻한것이라하고 內容으로는 이갈나무(낙엽송·잎갈나무)이다.

5. 結論的으로 提言에서 지적한 案內板의 說明內容은 傳說的인 맛이 많이 풍기고 있다. … 重複된 部分도 있으나 參考바랍니다. … 〈圓光大農科大林學科·任慶彬〉